

재난급 폭염 시민들 신음...행정 콘트롤 타워가 없다

광주 온열질환자 68명 발생...신임 구청장 대다수 여름휴가 부구청장들도 지난달 새로 취임 지역 실정 파악하느라 '진땀' 폭염대책 문자메시지·가두방송 등 전시행정 수준 못 벗어나

광주지역에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20일 넘게 지속되면서 저소득층·노약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재난급 폭염에 맞서 고군 분투하는 시민과 달리, 각 취임한 초선 구청장들의 행정에서 구민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폭염피해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지역민의 반응이다.

6·13 선거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인 자치구 수장에 오른 광주지역 구청장 대다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치단체에서 재난급

폭염에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에도, '폭염 대처 콘트롤 타워' 역할마저 포기한 채 여름휴가를 떠나거나 계획중에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지난달 31일 기준)까지 광주에서는 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더위로 실신했거나 두통 등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는 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긴급 폭염안전대책본

부가동에 들어갔다. 대책본부 인력은 광주시 25명, 동구 24명, 서구 25명, 남구 27명, 북구 35명, 광산구 22명 등 총 158명.

광주시와 자치구는 방문간호사·독거노인생활관리사·사회복지사·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도우미(동구 563명·서구 377명·남구 355명·북구 287명·광산구 1017명)가 1만여명에 달하는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폭염 대책 업무라는 것이 현장점검, 문자메시지 발송, 농촌지역 대상 가두방송 등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진 60대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열사병으로 추정될 정도로 폭염이 절정

에 달했지만, 각 구청은 1일 정부의 건설현장 폭염 점검 긴급지시가 떨어지고서야 점검에 나섰다.

시민들의 끝 모를 폭염 고통을 뒤로한 채 여름휴가를 떠나는 구청장까지 생겨나면서 뒷말도 나오고 있다.

불과 2개월 전 만해도 지역민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던 초선 구청장들이 재난급 폭염을 단순 무더위로 생각하고 휴가를 떠난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과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름 휴가중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6~10일, 서대석 서구청장은 9~15일 휴가를 떠난다. 김병대 남구청장만 여름휴가를 폭염 해소 이후로 미뤘다.

휴가를 떠난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각 자치구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지난달 25일 새로 취임해 지역특색에 맞는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인사권 등이 있는 구청장이 진두지휘하는 것과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이 나설 때의 업무추진력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자치구 내부에서도 나온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덮쳤는데 각 취임한 초선 구청장들은 재난이 아니라 단순한 무더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도로에 물만 뿌리지 말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몸소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완도 물놀이 실종 고교생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완도 해상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된 고등학교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완도군 금일읍 일청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경 구조대가 숨진 A(19)군을 발견했다. 해경 구조대가 수중 수색 중 물속에서 숨져있는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에 사는 A군은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일청항 인근 해상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됐다. 해경은 실종 신고를 받고 헬기, 경비함정, 민간구조선,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여왔다. 해경은 함께 물놀이를 한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우즈벡 여성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외국인 A(여·29·우즈베키스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마트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여·7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광주 22일째 폭염
12일 이후에도 이어질 듯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광주에서도 22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오는 12일까지는 폭염의 기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보돼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등이 요구된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서구 풍암동 39.6도, 광주 북구 오룡동 39.1도, 곡성 38.9도, 광주 광산구 용곡동 38.8도, 나주 38.5도 광주 북구 운암동 38.3도 등을 기록했다.

앞으로 한동안 무더위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의 단기예보(3일)와 중기예보(10일)를 보면 오는 1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이 37도 안팎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일 오전 11시를 기해 완도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흑산도 등 일부 섬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양동시장 인근서 불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인접한 빈집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했으나, 상인들이 합심해 막아냈다.

2일 오전 9시 36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상가 뒤편 빈집에서 불이 났다. 상인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문이 닫힌 상가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큰 불길에 잡힌 것을 확인하고 9시 50분께 전장 속에 남은 잔불을 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핫도그 먹어요”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서석영어센터에서 열린 2018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만든 핫도그를 먹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17일까지 17와 27로 나눠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서석센터를 비롯한 광천센터, 오정센터, 첨단센터 등 4곳에서 열린다.

광주 성희룡 여고 가해교사 16명으로 늘어

경찰, 6일부터 소환 ...학생들 제2 피해 없게 제3 장소서 조사

제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사 16명이 이르면 다음주 초 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전제 교원(57명)의 20%에 달하는 11명의 교사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전수조사결과 5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가해교사는 16명(30%)으로 늘어났다.

광주남부경찰 2일 “성희롱·성추행 혐의

를 받는 광주 모 사립여고 교사(16명)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전수자료를 전달받아 여성청소년수사팀(13명)이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만 180여명에 이르고 자료가 많아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데만 2~3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학생들이 제2의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학부모와 국선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사운영 및 대입지도 파행을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안정화 지원단과 실무 추진반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간제 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3억원의 인건비를 긴급 지원하며, 원활한 교사 채용을 위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제

공한다.

필요에 따라 대입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공립학교 교사 파견 및 순회배치도 검토 중이다. 진로진학 상담지원단도 편성해 13일부터 2주간 고 3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입시상담도 병행한다. 학생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남구청소년복지센터와 함께 위클래스 상담교사 8명을 긴급 파견, 상시적으로 상담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학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교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성폭력 근절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물놀이 어린이 3명 극적 구조

○...진도 가사도 인근 해변에서 분홍색 새모양인 ‘플라멩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어린이 3명이 돌풍에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모(13)양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해변에서 플라멩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중 순간 돌풍이 부는 바람에 해변을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17분만에 구조됐다는 것.

○...충북에 살던 이모(13)양 등 3명은 이날 방학을 맞아 진도에 사는 외가집으로 놀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9평 건247평)
▶ 감평가 12억9천 → 최저가 7억1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백 → 최저가 4억4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제 (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1억2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강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988평 건2,400평
▶ 감평 68억 → 최저 47억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8평 건58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⑨ 전남 장성읍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